

2018



<역사적·공간적 상징성을 결합한 한성1918 탄생>

철거 위기에 놓였던 근대건축물을 부산시가 2015년 매입·보존하였다.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2018년 4월 12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으며, 2025년까지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로 운영되었다.

시간을 지나, 예술과 연결된다.

한성1918 B-Culture PLAZA는 1918년 건립된 근대건축물을 기반으로 조성된 문화예술공간입니다.

옛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시작해 지역의 변화와 함께 온 이 건물은 현재 부산예술인지원센터와 BCP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예술인의 창작과 복지, 협력과 교류를 지원하는 부산예술의 대표 창작거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현재를 잇다”

근대건축물의 시간과 기억을 오늘의 문화 경험으로 연결합니다.

“창작과 성장을 지원하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교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원도심과 함께하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결하며 새로운 문화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2026



<현재 한성1918의 모습>

2025년 공간 재정비를 거쳐 2026년 한성1918 B-Culture PLAZA로 정식 개관한 후 새로운 기능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성1918
B-CULTURE PLAZA

오시는 길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3(동광동)

교통편

지하철 1호선 중앙역 3번 출구 도보 5분

버스 백산기념관·영화체험박물관 정류장 하차

운영시간

월~금 10:00 - 17:00

토·일·공휴일 휴관

연락처

부산예술인지원센터 051-257-8032

BCP공유스튜디오 051-257-8033

청자출 대관문의 051-257-8034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더 많은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
B-CULTURE PLAZA



100년의 시간을 이어주는 문화예술공간

한성은행 부산지점(1918)

한성1918의 역사

한성1918은 1918년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건립된 근대건축물입니다. 은행 기능이 종료된 이후 민간 소유의 상업·생활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2015년 부산시가 매입·보존하기로 결정하였고, 1년간 리모델링을 거쳐 2018년 4월 12일, 100년 만에 시민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부터 예술인의 공간으로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약 1년간 공간 재정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6년 4월, 「한성1918 B-Culture PLAZA」로 거듭나 예술인 복지와 창작활동, 시민의 예술향유를 이어주는 부산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설립이전



<동광동, 중앙동일대> 1920년대

한성1918이 위치한 동광동 일대는 조선 후기 초량왜관이 자리하던 지역이었다. 개항 이후 왜관이 철거되고 해안 매축과 도시 정비가 진행되면서 현재의 원도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동광동 일대는 바다와 맞닿은 해안가였으며, 현재 한성1918이 위치한 부지는 해안선과 시가지가 만나는 경계 지점에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8



<한성은행 부산지점 전경 및 한성은행 주권>

국내 최초의 민족 자본 은행인 한성은행의 부산지점으로 건립되었다. 당시 동광동 일대는 일본과의 교역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으로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부산 전체에서 영업하고 있던 19개 은행들 가운데 한성은행을 포함하여 14개의 은행이 이곳 동광동에 밀집해 있었다. 동광동 일대에서 현재까지 외관이 남아있는 은행 건물은 한성은행 부산지점이 유일하다.

1990



<청자빌당 시절의 모습>

은행 기능이 종료된 이후 민간 소유로 전환되어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었다. 1964년 현재의 3층 규모로 증개축되면서 건물의 형태가 크게 바뀌었으나, 옛 은행 건물의 모습은 1층 기반부 일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1층에서 영업하던 '청자빌당'의 영향으로 건물은 오랜 기간 '청자빌당'으로 불렸다.

건물에 남은 시간의 단서

한성1918은 1918년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건립된 이후 여러 차례의 사용과 변화를 거쳤습니다. 건물 곳곳에 남아있는 근현대 건축자재와 설비, 붉은 벽돌 마감재 등은 이 공간이 은행에서 상업시설,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골짜진 시간을 그대로 투영하여 보여줍니다.

남겨진 흔적들은 단순한 장식이나 역사적 건축물일 뿐 아니라 한성1918이 지나온 시간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인문학적으로도 소중한 부산 원도심 공동의 문화유산입니다.

청자홀(1F)

연면적 189m² / 수용 70명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는 다목적 공간



한성1918 1층 하부에 위치한 청자홀은 시민과 예술인이 만나는 열린 공간입니다. 전시와 공연, 강연,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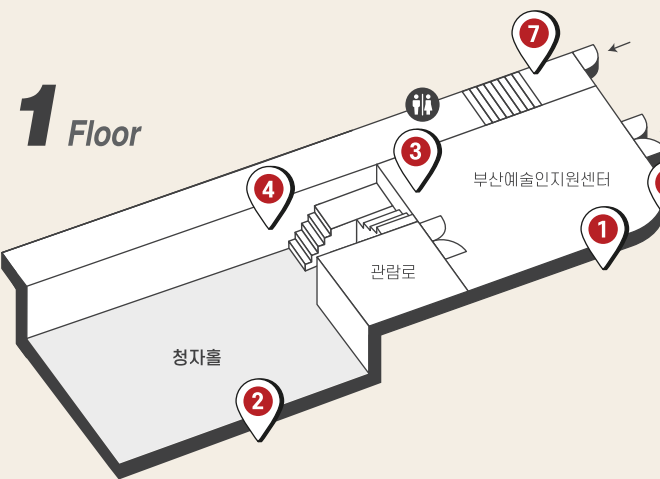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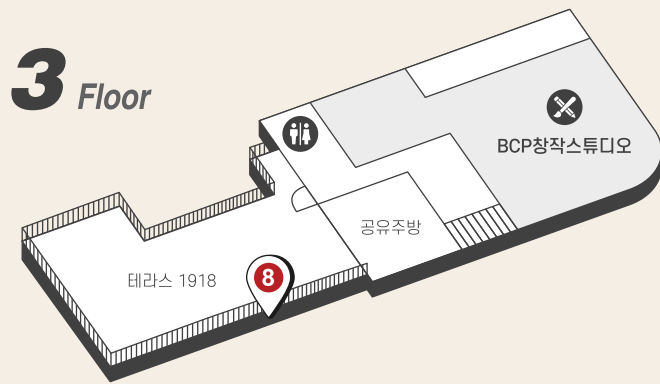
아카이브 자료실(2F)

시각예술관련 전문서적 열람 및 사업 발간 자료 비치 공간



한성1918 층별안내도

한성1918 곳곳에 남아있는 **시간의 단서**를 찾아보세요!



1 동광동 1-1
한성1918이 자리한 옛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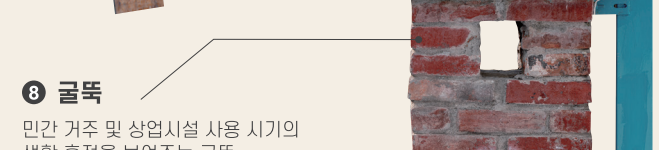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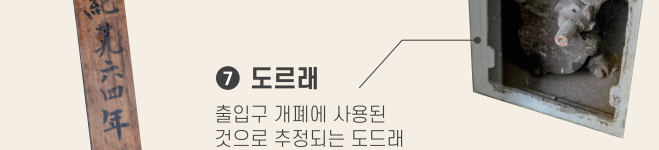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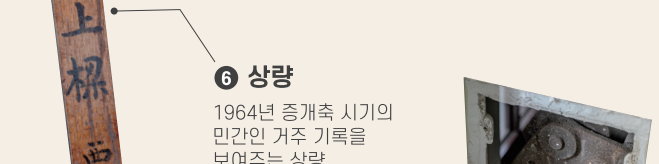
2 창틀 및 벽돌
건립 당시 재료와 이후 보수 흔적이 남은 벽돌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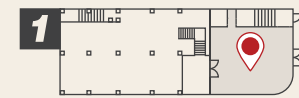
3 청자벽화
1층 청자다방이 운영되던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 그림 (작자미상, 청자발딩 명칭의 모티브가 됨)



4 석축
옛 지형과 건물의 기초를 짐작하게 하는 해안선 석축



사업 소개



부산예술인지원센터 (1F)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정보·상담·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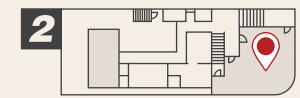
1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역 예술인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복지 서비스 연계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활동준비금 대행 서비스와 복지 사업 정보 제공



BCP창작스튜디오 (2~3F)

입주 작가 간 교류와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 예술 생태계의 확장을 이끄는 공간



1 입주작가 창작지원

전용 창작공간 및 공용시설을 제공하고 교류·협업 중심의 창작활동 지원



2 원도심 네트워킹

원도심을 거점 삼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운영



한성1918과 함께 둘러보는 원도심

한성1918이 위치한 동광동-중앙동 일대는 부산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중구문화원

부산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문화공간



40계단

한국전쟁 피란민의 삶과 기억을 담은 역사문화공간

